

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

새누리의 진단

- 현재 학교 교육은 입시에 예측되어 있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해주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
- 소질과 끼를 끌어내어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방향이어야 하며, 교육이야말로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,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 되어야 함.

새누리의 약속

- 중학교에서 1개 학기 동안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
 -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, 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기록
 -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 토론·실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
-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과목 감축

새누리의 실천

-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제도 개선

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(Zero) 환경 조성

새누리의 진단

- 최근 잇따른 학생 자살이 보여주듯,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,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기존의 어린이보호지역(School zone)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(Green food zone)을 통합하여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‘학생안전지역(Safe zone)’으로 지정
- CCTV 설치 확대 및 ‘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’ 운영
- Wee클래스·Wee센터·Wee스쿨 설치 확대 및 Wee센터·Wee스쿨에 학교 폭력전문 상담·치료인력 대폭 확충
- 정서·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

새누리의 실천

- CCTV 설치 및 학교폭력 전문 상담·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
- 정서·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

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

새누리의 진단

- 고등학교 진학률이 99.7%로 보편화
-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

새누리의 약속

-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, 수업료 · 입학금 · 학교운영지원비 · 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
 - ※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 포함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검토

새누리의 실천

- 2014년부터 매년 25%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
(2014년 25%, 2015년 50%, 2016년 75%, 2017년 100%실시)
- 「교육기본법」 개정 및 관련 예산 반영

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

새누리의 진단

-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의식 없이 교과 성적에 의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
- 어려서부터 진로의식을 성숙시켜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를 찾아가도록 교육할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
-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 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고,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의무화
- EBS에 자아탐색, 직업·전공탐색,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,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무료 제공

새누리의 실천

- 진로상담교사 추가 임용 및 배치
- EBS의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

체육교육 강화로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

새누리의 진단

-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체육활동이 매우 중요하나, 현재는 입시위주의 학교 운영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
- 따라서 초·중·고교에 체육전담교사 및 스포츠 강사를 추가 배치하여 스포츠클럽 활동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

새누리의 약속

-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신규 배치
- 모든 중·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중·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

새누리의 실천

-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 전담교사 신규 임용
- 스포츠 강사 채용 예산 반영 및 단계적 처우 개선

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및 대학입시 간소화

새누리의 진단

- 각 대학마다 서로 다른 지원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, 요구하는 세부서류도 다양해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 증가
- 뿐만 아니라 입시전형료가 평균 7만원에 이르고 있어, 중복지원하는 수험생 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

새누리의 약속

-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모든 대입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·운영
- 대입전형료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전형료 인하 유도
-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위주,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별 반영 비율을 최대한 단순화하여,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
-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산어촌 출신 학생, 저소득층 학생,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

새누리의 실천

-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 반영
-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